

포스터 III-2

제 목	국 문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체형 만족도와 관련된 자아개념 및 건강행태	
	영 문	The Effect of Body Shape Satisfaction on Self-Concept and Health Behavior in School Childre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황인경, 차에리, 하이호, 박정래, 이수일, 조병만, 김돈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 교실	
	영 문	In Kyung Hwang, Ae Ri Cha, Ea Ho Ha, Jung Rea Park, Su Ill Lee, Byung Mann Cho, Don Kyoum Kim <i>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Occupational Medicine</i>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황 인 경
발표 형식	포스터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초등학교 어린이들에서의 왜곡된 체형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왜곡된 체형 인식을 반영하는 체형 만족도가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자아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건강행태에도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1998년 5월에 부산시내에 위치하는 초등학교 중 무작위로 선택된 2개교의 4,5,6학년 어린이 1026명을 대상으로 '한국 소아의 신장별 체중 백분을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 체중'에 의한 비만도 판정을 하였으며 20% 미만을 '비비만군', 20% 이상을 '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Sorensen에 의하여 개발된 '자기기입용 비만도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한국판 Piers-Harris 소아자아 개념척도' 이용하여 자아 개념을 파악하였으며 건강 행태에 대해서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 및 운동, 편식, 규칙적인 이닦기와 비타민 및 기타 영양제 복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외 자아 인식과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은 이들 중에서 응답 내용이나 신체 계측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845명(남:434, 여:411)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p>			

3. 연구결과

전체 대상 845명 중에서 비만군 151명(17.9%), 비비만군이 694명(82.1%)이었으며 남학생은 전체의 23.7%, 여학생은 11.7%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4학년의 22.6%, 5학년의 21.8%, 6학년의 11.5%가 비만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년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게 나타났다.

비만군과 비비만군에서의 체형 인식과 체중조절 경험 빈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비비만군에서 남학생의 51.1%가 마른 편이라고 생각하고, 여학생의 48.5%가 본인이 뚱뚱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성에 따른 체형인식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이들 중에서 자신의 체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25.4%에 불과하였다. 체중 조절 경험에 있어서도 여학생의 31.7%, 남학생에서는 10%에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여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비만군에서는 전체의 90.1%가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61.6%에서 체중조절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남·녀 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체형 만족도가 자아개념과 건강 행위 실천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체형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개념 점수가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건강 행위 실천 정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자아개념과 건강 행위 실천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으며 ($r=0.268$), 체형 만족도가 자아개념과 건강 행위 실천 정도에 동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비비만군에 해당하는 여학생의 48.5%가 좀 더 마르기를, 남학생의 51.1%가 좀 더 근육질의 체형을 갖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한 부적절한 체형 만족도는 자아개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체형과 관련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비만아들의 정신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비비만아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체형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